

# 이동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상과 재난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

올해로 창립10주년을 맞이한 (주)섬엔지니어링(대표 현규남 [www.sumeng.co.kr](http://www.sumeng.co.kr))은 제주도에서 한 발 앞서가는 정보통신공사업체다. 이 회사는 한 때 제주지역 무선호출 사업자였던 제주이동통신(주)이 폐업을 하면서 당시의 기술팀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2000년 7월 설립되었다. 제주지역의 LG텔레콤 이동통신시스템 분야의 유지보수를 시작으로 KT의 NESPOT Biz Zone구축과 유지·보수, 리얼텔레콤 무선호출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면서 기술력과 경험을 쌓아 왔다. 그동안 제주도의 정보통신 시공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오던 중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 2007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나리는 홍수가 흔치 않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때 제주도가 재난 대비에 취약했던 점을 착안해 이 회사는 발 빠르게 기상과 재난분야 쪽으로 사업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3년 간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상청 등으로부터 제주도내 USN 기상관측 시스템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강우량관측시스템 등을 수주 받아 구축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납품, 재난관리사 및 재난지도사 인력배출 등 재난·재해 사업 분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에 전문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ICT사업부부를 제주벤처마루에 신설했다. 이를 계기로 IP-USN 연계검증 선도사업 방송통신망 기반 기상환경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망 연계 및 확산을 추진했다. 또 전력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인 'Smart Place 실증단지 구축사업'으로 Global Smart Grid 시장진입을 위한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Smart Grid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각종 정부과제 및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될 것

기상과 재난분야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 섬 엔지니어링은 현재 재난관리사와 지도사, 각종 보안솔루션 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보안전문가, 사물지능통신 및 RFID/USN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산학공동 개발 등을 통한 상용화도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업, 기상재난사업, ICT개발사업 부분을 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뿐 아니라 국·내외로 사업범위를 넓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현규남 대표는 "이동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상과 재난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전문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매년 전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하며 인력의 고급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기상 환경 생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섬엔지니어링. 2009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앞날이 더욱 기대가 되는 알짜 중소기업이다. 투명한 경영과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되겠다는 이 회사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재현 기자